

대림 제 2 주일
(인 권 주일)

기도서 211면 (A해).

제1독서 : 이사야	11,1-10
제2독서 : 로마	15,4-9
복 음 : 마 태	3,1-12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마태오 3,3).

강론



사랑하는 조국아!

유 장 훈 신부

배극기가 계양되면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어느덧 우리는 숙연해지고 마음속에 몽클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렇다 하게 조국에 기여한 일 없고, 나라 사랑을 뚜렷하게 증명해 보인 일 없어도, 아직 한가닥 작은 나라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나 봅니다.

그런데 산수(山水)의 수려(秀麗)함이 먼저 조국애(祖國愛)를 느끼게 하는 것도 아니요, 물질적인 생활조건이 남달리 좋아서 나라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핏줄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정을 나눌 수 있는 내 민족, 내 겨레와 함께 사는 영원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내일의 밝고 평화스런 조국을 이룩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위에 살아감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모두가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조국에서 이게 어인 일입니까?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곳은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갈 수 없고 반면에 마음에 내키지 않은 곳에는 가슴에 휘장을 두르고 나서야 됩니다. 마음껏 소리쳐 보고 싶은 말은 할 수 없고 대신 시키는 말을 목청 돋구어 외쳐야 됩니다. 정성스레 땀 흘려 모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쓸 수 없고, 성금이라는 미명아래 마음내키지 않게 주어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일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애써 가르쳐 온 우리 자녀들이 불순 광경세력으로 쫓기고 존경하는 신부님이 용공으로 물리며 수녀님의 고결한 배일이 광패에 의해 벗겨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스럽고 서글픈 우리 조국이며, 양심도 지성도 자유의 지도 다 팽개쳐 버리고 꼭두각시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야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나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성적 조국에만 의존 부족하고, 훌륭한 자세로 무엇인가 분명히 나라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욕심에서 벗어나 진실되게 행동해야 되겠고, 나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주며, 이때울로기를 논하기에 앞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 없는”(이사야 11,6~9참조) 조국이 하루빨리 이룩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율동 천주교회)



딱하다!

한 나라의 살림규모가 단 2분만에 결단이 나고 말았다. 15조5천5백96억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서민들로서는 감을 잡을 수조차 없다. 2분·민정당 의원실·단독·기습·번치처리-이럴 수는 없다.

민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정시한 내에 의결함으로써 예산국회의 1차적 책무를 다하고, 작년과 같은 신민당 의원들의 폭력 파괴행위를 미연에 막기 위해 부득이 차선책을 원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아무런 하자없는 적법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럴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납득이 안된다.

우리 헌법은 제90조 제3항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임시예산, 즉 기본적인 업무를 위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이 될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정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한 것은 문제치고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회계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니 여유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었지 않은가? 더구나 “신민당의 폭력 파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그랬다니, 이진 어찌자는 말인가? 예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당시의 상황을 기자들의 눈을 빌려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사회를 맡은 최영철 국회부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망이를 치며 새해 예산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당황한 나머지 산회선포를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치려다가” 주위의 권고로 산회를 선포한 후 “황급히 퇴장”했다고 신문은 적고 있다. 떨리는 목소리·당황한 나머지·황급히 퇴장-이런 표현이 왜 나와야 하는가? 이렇고 또 어떻게 뻗뻗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여유없이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숲 정 이 산책



각 위문품을 보내실 분은 각 본당 사무실에 문의 바람

대림절과 신자생활

대림시기는 예수성탄 대축일 전 4주간 동안이다. 4주간은 구약시대에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던 기간을 상징한다.

교회는 대림시기를 따로 마련하여 우리 존재 전체가 주님을 향하도록 기도와 자선과 극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오시기를 기다리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 대림절 동안 전례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이사야 예언자, 세례자 요한과 마리아다. 두 예언자는 권모술수와 무력이 신앙에 앞서 판치는 사회 속에 나타난 분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에서 종교, 사회, 민주적 종말의 상황을 예견하고 마음으로부터의 회개와 속죄, 메시아의 대림에 대한 준비를 외치고 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마태 3,8).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만을 깎아내리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잊고 아무렇게나 사는 골짜기를 메우고 형편대로 적당히 살겠다는 굽은 정신을 곧게 하고, 온갖 잡념으로 응어리진 험악한 마음을 고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갈 곳없는 형제들과 탄압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받아들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림절은 단순히 전례적인 의식으로만 지낼 것

오늘, 해의 선교사를 위한 헌금의 날

오늘은 해의 선교사로 파견된 정승현·김윤섭·방의성 신부의 사목활동을 돕기 위한 특별헌금의 날입니다.

정승현 신부님은 지난 8월 20일에 페루 차차보야스 교구 홍보야 본당신부로 부임하여 사목중에 있습니다. 홍보야 본당은 그곳 교구청에서 비포장 도로로 9시간 걸리는 해발 1,930m의 산골 본당으로 신자수 4,000명, 공소 25개로 교통이 불편하여 말이나 오토바이가 있어야 사목할 수 있다는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윤섭 신부님은 멕시코에서 언어수업을 마치고 페루 리마로 떠나기 전에 맹장염 수술을 받고 현재 대기중에 있으며, 방의성 신부님은 지난 11월 3일에 임지인 페루 리마로 떠나셨습니다.

세 분 신부님들의 사목활동을 돕기 위하여 신자들의 적극적인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이 아니라 하느님이 오심을 진심으로 갈망하면서 그 준비 과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의 깊으신 뜻을 깨우치려는 자세라야 하겠다.

□성서교실 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마태 3:1).

세례자 요한의 준비에 대한 기사(記事)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것은 대동소이하다. 마르코복음의 기사가 제일 짧고, 루카복음의 그것이 제일 상세하다. 특히 루카의 기사는 세례자 요한 출현의 시기(時期)를 말하고 있다.

구약의 예언자에 의한 하느님의 말씀이 유다에 없었던 때가 이미 2백년이나 되었다. 사람들은 제2경전(외전·外典) 또는 위전(僞典)을 가지고 신의(神意)를 찾으려고 암중모색해 왔다. 이 기간은 참으로 침묵 또 침묵 그것이었다. 아모스, 예레미야, 즈가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느님은 이제 침묵을 지키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돌연 한 「소리」가 요르단 강변에서 들려 왔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의 주인공은 옛날의 예언자처럼,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살았다.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 늙름한 그의 「소리」에는 천래(天來)의 「메아리」가 있었던 것이다(마태 3:2~4).

세례자 요한의 출현을 세계사(史)를 양분하는 대(大)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에 의한 우주 창조 이래 최대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 자신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올 주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한 1:23)였다. 요한은 분명 「소리」화(化)된 말씀이었고, 그리스도는 「육체」화(化)된 말씀이었다. 7백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일러진 「메시지」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을 통해서 「소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는 자기 「소리」를 전하지 않았다. 음색(音色)이 순수하고, 천상적인 것이라며 「자기 독단」의 탁한 「호흡」은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갈라 2:20)이다. 요한의 「소리」는 노래하는 「소리」가 아니고,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 하느님의 뜻을 위한 「진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였다.

요한의 「소리」는 이마에 「표」를 받는 「소리」였다. 신음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은 이마에 하느님의 「표」를 받게 된다(에제 9:4).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신부화장·파마 전문

데레사 미용타운

전주시 중앙동
전주백화점 뒷골목
전화 6-6145
범 데레사

28년간 닦아온 기술과 신뢰 속에
앞서가는 현대안경원!

—교우님 특별우대—

전주 현대안경원

김문곤(요셉) 김서곤
☎ 83-6644·2-3744
전주시 중앙동 3가 72-1(전주우체국 후문앞)

교 구 소 식

1. 재정 참사회: 9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참사회: 10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3. 교구 인권주간 강연회 "고문 현실과 인권": 8일 오후 7시
장소-중앙천주교회, 강사-고영구 변호사
4.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사용자 교육: 9일 오전 10시~12시
① 교육내용-생식생리와 접액관찰법 슬라이드 교육
② 대상-임신을 원하거나 피임을 원하시는 분(미혼자·부부 환영)
③ 장소-가톨릭센터 2층 행복한 가정운동(3-5098)
5. 각 본당 사목회장 단체장 성지순례: 13일 오후 1시 쉼타 집결, 장소-여산→천호
※ 당일 현지로 오실 분은 오후 2시까지 여산성지로 직접 오시기 바람
6. 이향자 사목: 대전지역 신자들 이향자 사목-14일 오후 4시, 장소-대전 목동성당
※ 대전에 살고 계신 신자들에게 연락바람
7. 꾸르실로 남성 제25차: 87년 1월 16일~12일까지
여성 제22차: 87년 1월 16일~19일까지 ※ 수강 희망자는 본당 사무실에 상의바람
8. 일선장병을 위한 위문금 및 위문편지 수집 협조: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보낼 위문금·위문품·위문편지 수집
접수처-교구청 사목국(5-0041), 접수일-12월 20일까지
9. M·E 15차 모임: 12월 12일~14일, 장소-광주 명상의 집
10. 테클라 모임: 이번 달 모임은 수도회 중간총회 모임 관계로 없습니다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사료 전시회 및 강연회

1. 군산지역: 사료전시회-돈울동성당, 강연회-팔마성당
① 사료전시: 12월 3일(수)~12월 7일(일)
② 교회사 강연회: 12월 6일(토) 오후 7시30분~10시30분
12월 7일(일) 오후 3시~6시
2. 이리지역: 창인동성당
① 사료전시: 12월 10일(수)~12월 14일(일)
② 교회사 강연회: 12월 13일(토) 오후 7시30분~10시30분
12월 14일(일) 오후 3시~6시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전주 순정이→치명자산(오후 1시~4시)

일	요일	담당신부	일	요일	담당신부
7	일	김병운신부	14	일	법석규신부

※ 가정기도 독서: 시편 88, 1~18 요한 12, 1~8

잡간!



☆ "새 모습-황등성당"

황등본당의 모습이 새로워졌다.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을 위하여 각 본당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2지구 황등본당(주임: 김순태 신부, 사목회장: 장현순)은 교육관을 개설하고 수녀원을 건립하는 등 본당의 모습을 새롭게 했다. 특히 교회의 외적 상징인 새 종탑을 세워 교회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했는데, 이 모든 사업은 본당신자들의 순수한 헌금(3,500만원)으로 이뤄낸 것이라 한다. 지난주(11월 30일) 교구장 박주교님을 모시고 견진식과 더불어 축성식을 하고 축하행사를 가졌는데 본당을 사랑하는 열성으로 맺은 좋은 모습에 신자들의 기쁨 하 루였다고. 황등본당의 더 큰 발전을 빈다.

요십이 (696) 김병오

신민당 서울대회를
최루탄과 힘으로 막았구나!

새해예산안도 여당 단독으로
2분만에 날치기 통과시켰구나!

개헌안도
틀림없이...

최루탄과 힘으로
날치기 통과 시켰구나!

대림절 준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동안 영적 양식을 쌓읍시다.

- *서적 *카세트
- *음반 *비디오
- *상본·포스터
- *성탄 카드

성바오로 서원

개원 오전: 9시~7시30분
일요일: 오전 10시~4시
※ 매달 마지막 일요일은 열지 않습니다.
☎ 3-3398

한봉(토종꿀)판매

장수 장안산 기슭에서 본인이 직접 생산한 고유한 한봉(토종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전화 문의나 직접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서학동성당
관리장 김정훈(스베파노)
전화 2-8307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학장·드레스마출·대여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3

베소라성서 강의 마귀들린 병어 리치유

(마태 9:32~34)
-마을 속에 자리잡고 있는 마귀-
일시: 12월 12일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장소: 가톨릭센터 3층

"기도로써

사람은 강해지고

하느님은

약해진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명동피부과의원

3-1719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 성탄판공 때 세대주는 주임신부와 면접이 있습니다
1. 금주는 증거주간입니다: 사랑과 시간의 나눔, 불우한 이웃과 물질의 나눔을 통해 증거하는 생활을 합시다
2. 성탄 판공성사 일정: 인후아파트-11일 오전 10시부터, 우아아파트-12일 오전 10부터(현지에서), 국민학교 어린이-13일(토) 오후 2시부터(본당)
3. 대의원 총회: 14일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 각 단체회장님, 각 공소회장님들, 사목회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본당 울뜨레아: 오늘 저녁 8시 남녀 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이 참여바람
5. 신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각 단체의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15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세요
6. 짝교우 모임: 9일 어머니미사 후 부부중 한쪽만 교우인 분들의 모임입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7. 불우한 이웃에 연탄보내기: 우리 주변에는 추운 겨울을 지내는 불우한 이웃이 많습니다. 협조바랍니다
8. 요셉회 정기총회: 14일 공식미사 후 회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9. 감사제 헌금접수: 아직 감사헌금을 봉헌하지 못한 신자들은 12월 31일까지 접수하세요
10. 본당 엠이가족 전체모임: 12월 17일 저녁 7시30분 소성당에 모이세요
11. 금주전례: 해설-박중주, 독서-봉헌-김용기 부부 신자기도-임영빈 부부, 촛불봉헌-김환창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종관, 독서-봉헌-윤석연 부부 신자기도-안재홍 부부, 촛불봉헌-최재인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60,510원 교무금: 756,000원
지난주 신축금: 450,000원 감사금: 62,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오늘은 해외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고입학력고사를 위한 미사: 10일(수) 저녁 7시
2. 김루시아 원장수녀님 영명축일: 13일(토) 수고하시느는 수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람
3. 교무금 미수 연납바랍니다
4. 영세예정자 진종교리: 15~19일 저녁 7시30분
5. 세대별 신부님 면담: 오후 2~5시 저녁미사 후 10·11-다가동 1~4반, 중앙동 1~2반, 12일-화산동·완산동, 16일-태평동 1~4반, 17일-태평동 5~8반, 18일-고사동 1·2반·진북1반, 19일-진북2~5반, 기타는 제날짜에
6.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공사헌금: 4백만원-빈척시 오집, 3만원-김병호·김정숙, 계-4백3만원 누계-3천3백2십9만9천원
7. 자모회: 11일 오전 10시
8.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9. 빈첸시오회: 다음주일 꾸리아 회합후
10. 줄!: 석유난로 5대
스타사진관 장바오로씨 감사합니다
11. 금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일치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11. 금주전례: 해설-최희숙, 독서-①고렐레나 ②정동민 봉헌-김수영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인덕, 독서-①김수영 ②노순덕 봉헌-이남덕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1,511원 교무금: 533,5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절 우

- ☆ 축! 건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대립절동안 주일과 평일미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예수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준비 합시다
1. 해외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오늘
2. 사목회: 공식미사 후
3. 가정방문: 10일(수)-내정·공기(강덕용)

11일(목)-서당·신촌·사육·남관(양대환)

12일(금)-하신평·색장(이우동)

- 4. 50주년 헌금: 1만원-양병욱, 5천원-조옥단, 3천원-송소아·이우자, 2천원-은명주·서정희 계-2만5천원, 총계-19만7천원
5. 감사: 송정이 은인-김철중 2구좌
□ 지난주 봉헌금: 112,270원 교무금: 19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감 덕 참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해외선교사를 위한 특별헌금 있습니다
2. 꾸리아: 오늘 오후 3시
3. 성심회: 13일 오후 2시
4. 다음주 모임: 반장님 월례회, 프란치스코 형제회
5. 청년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목·금요일 오후 7시30분
6. 예비자 특별교리: 평화동-토·화요일 오전 10시 본당-일요일 공식미사 후, 화·수요일 오후 7시30분 학생-토·일요일 오후 6시
7. 교무금 납부: 교무금 미납되신 분은 지진 납부 바람
8. 추계 판공성사: 평화동성당-9일~13일까지 오전 10~12시, 오후 3시~6시, 9일: 1~3반, 10일: 11~13반, 11일: 6~8반, 12일: 9~10반, 13일: 4~5반 광곡공소: 14일 오후 3시30분, 마음리공소: 21일 오후 3시, 본당: 16일부터 20일까지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미사시간 전후
16일: 1~6반, 17일: 7반~12반, 18일: 13~18반, 19일: 19~24반, 20일: 25~27반·기타반
9. 금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강기호 ②유용산 봉헌-김기일 부부
평화동: 해설-문치규, 독서-①박병환 ②오수환 봉헌-김유순 가정
차주전례
본 당: 해설-김배근, 독서-①장현주 ②김한기 봉헌-김환용 부부
평화동: 해설-함문권, 독서-①정형석 ②오수환 봉헌-한윤순 가정
□ 지난주 봉헌금: 평화동-105,310원 본당-281,810원 계-387,120원 교무금: 770,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신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 사무실 83-5085번

-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자모회: 9일 오전 10시30분
3. 형제회 젊은이 모임: 오늘 오후 5시(사제관)
4. 영세시: 20일 오후 7시, 집종교리-11일~18일 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통신교리 수강자 환영)
5. 추계 판공성사: 16일-동완산동·서완산동, 17일-동교동·서교동, 18일-풍남동·남노송동, 19일-전동·중앙동·경원동·다가동, 20일-기타·학생·공무원 시간-오전 10시~12시·오후 2시~5시(시간연수)
6. 주민등록등본: 아직 제출 않으신 분은 제출바랍니다
7. 50주년 헌금: 아직 신일 않으신 세대는 신일바랍니다
8. 사무직원 양해정 사임: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9. 사무직원 채용: 고품 이상자로 성실하고 유능한 여신자(자필이력서 1통 제출바람)
10.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오경미, 독서-①최정식 ②이덕수 8시 30분: 해설-방유경, 독서-①김홍기 ②손희부 공식미사: 해설-최종만, 독서-①정우진 ②고수창
□ 지난주 봉헌금: 893,030원 교무금: 458,500원
50주년헌금: 293,86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수요성서 강좌: 10일-신명기 전체
2. 고입 수험생을 위한 미사: 10일 저녁 7시
3. 감사합니다
① 불우 이웃돕기 헌금(10만원)-한베로니카
② 송정이 탁자덮개 해주신 분
4. 모임: 오늘-꾸리아, 차주-클라라회
□ 지난주 봉헌금: 523,165원 교무금: 703,000원